

## 맑스學說의 梗概(三)

上海에서 新島

맑스의 所謂 一切 商品의 所費 的 勞動分量은 『生 的 勞動』과 『死 的 勞動』을 兼하여 한 말이니, 『生 的 勞動』이란 것은 商品을 製造할 時에 所費한 勞動을 닐음이요, 『死 的 勞動』이란 것은 商品製造에 原料, 工具, 建築 等과 갖은 以前에 所費한 勞動을 가르침이니 此亦 重大한 意味가 包含된 말이다.

『맑스』의 價値 及 勞動價値의 公例는 大略 以上에 陳述한 바와 如하거니와 茲에 剩餘價値에 對하여 다시 말하리라. 剩餘價値라는 것은 物貨의 價値와 此 物貨製造에 對하여 所費한 價値=生 的 勞動의 價値와 死 的 勞動의 價値를 兼하여 일은 巴의 差額이니, 假令 十萬 圓의 資金으로 十五萬 圓의 物貨를 生産하면 其 物貨 價値 十五萬 圓 內에서 資本 十萬 圓을 除하면 其 差別 剩餘 純益金이 五萬 圓이니 이 五萬 圓이 즉 剩餘價値란 것이다.

그런데 剩餘價値란 것은 엇더케 成立된 것인가? 『맑스』說에 依하면 剩餘價値는 生産過程 中에서 成立되고 流過程 中에서 成立되는 것이 아니라한 다. 此 點에 對하여 吾人은 誤解치 말지니, 왜 그러냐하면 『맑스』의 指稱한 剩餘價値란 것이 비록 流過程을 지나서 巴야흐로 資本家의 金庫 中으로 歸함이나 □□取하는 方法과 剩餘價値의 本質은 決코 流通되는 過路 中에서 一件一件 式의 生產品賣價를 會計함이 아니요, 生產品이다. 製造된 其 時에 勞動者와 資本家의 所做한 『剩餘勞動』의 價値를 가르쳐 말함이다. 『剩餘勞動』이란 무엇인고 하니 近代人物이 機械를 利用하여 製造上業의 規模가 日進月衰하되 手工業의 生產品은 機械的 生產品에 比하여 物品도 不好하고 價格이 又 貴하니 手工業은 日進月衰하여 手工業時代는 忽然 間에 機械工業時代로 變하여 家庭工業時代로부터 工場工業時代에 獨立生産時代로부터 共同生産時代에 變하여 産業革命이된 以來로 生産 上 必要한 工具, 卽 土地, 鑛山, □屋, 機械, 原料 等은 다 資本家의 占有한 바 되고 資本家 以外의 無産階級은 自身의 勞動力을 資本家에게 賣하는 以外에는 衣食을 得할 道理가

更無케 되얏다.